조계종 총무원은 민족정신의 계승과 민족문화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불교문화에 대한 인식을 재고시키고 재조명을 통해 불교문화의 전승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불교문화전반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같이 폭넓은 세미나를 개최하기는 종단사상 처음으로 이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불교문화를 선양하기 위해서는 종단에서 장기적인 정책을 세워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줄것을 요청했다. 불교미술(20일) 음악(22일) 성보관리(23일) 등의 주제 발표를 요약 소개한다(문학은 본지 79호 15면 보도).




◇불교문화에 대한 인식을 재고시키고 전승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불교문화 세미나가 지난 20~23일 열려 관심을 모았다. 사진은 22일 개최된 '찬불가 4반세기, 점검과 전망' 세미나 모습.

## 조계종 '불교문화세미나' 요약

# "새로운 불교문화 창출하자"

**미술** 불교미술대 설립 전문가양성·질 향상 모색

**음악** 찬불가 심의기구 설치…대중화 노력 필요

**성보** 훼손등 관리문제점 심각…국가차원 보존을

**불교미술** '불교미술의 진흥방안'을 발표한 문명대교수(동국대 불교미술연구소장)는 "불교미술이 사부대중은 물론 비신도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반인을 위한 교양교육, 불사참여자를 위한 전문교육및 불교미술작가 양성을 위한 전문가 교육과 △불교미술전문대학 설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교수는 "현재 문화사회부로 되어있는 종단기구를 문화부로 독립시켜 문화과와 문화재과로 나누고 문화자문위원회와 성보문화재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해 정책의 입안과 실천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자문과 참여가 활성화될 때 불교미술의 발전이 기대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불미전의 공정성을 확립시키고 권위있는 공모전으로 만들기 위한 바람직한 운영방안은 무엇인가. 이기선씨(불교조형연구소장)는 '불교미술대전의 효율적 운영방안' 주제의 발표에서 "현재 격년제로 시행되는 불미전을 홀수해는 전통미술부문, 짝수해는 현대미술부문으로 나누어 두 부문에 대한 성격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문호를 넓혀 세계를 대상으로 불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인류문화보편적인 교류를 위한 열린 마당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음악** 1920년대 용성스님에 의해 포교의 일환으로 만들어지고 배포되기 시작한 찬불가가 본격화되고 일반화된 것은 70년대부터이다. 찬불가는 △찬송가와 멜로디 유사 △합창단위주로 보급 △전문인 부족 등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덕신스님(조계종 문화국장)은 불교음악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불교합창단협의회와 불교음악 발전을 위한 후원회 결성 △전문음악인 영입 △불교방송·불교TV의 음악프로 활성화 △각 사찰합창단 산하에 어린이합창단 창단 △창작불교노래발표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

'서양음악에 의한 찬불가의 창작'을 발표한 이만방교수(숙명여대 음대)는 "종교음악의 경우 바로 심성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독자성을 잃어버리면 본래 모습을 찾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찬송가풍 복음성가풍의 노래를 지양하고 불교정신과 특성이 배어있는 찬불가를 만들도록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찬불가 심의기구 설치와 규정제정, 종단차원의 불교음악연구소및 불교음악교육기관 설립, 국제불교음악 학술대회와 연구발표회 개최" 등을 촉구했다.

박범훈교수(중앙대 음대)는 '창작찬불가의 역사적 배경과 전망'에서 "불교음악은 종교음악으로서뿐만 아니라 우리민족 삶의 소리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음악"이라고 전제하고 "전통불교음악의 선율, 장단구조, 짜임새 연주법상의 시김새 등을 분석 연구해 이것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불교음악이 창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교수는 "전문연주단체, 인재양성, 불교음악경연대회 및 창작작품공모 등 다양한 제도적 배려가 있어야 하며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결론지었다. 반영규씨(자비의 소리 대표)는 "보다 완벽한 인격과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찬불가의 가사는 품위있고 수행하는 마음이 담겨야 하고 문학적으로도 훌륭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불교전문용어는 풀어서 쉽게 △직설적 표현보다 함축된 표현 △거친말 속된 표현, 지나친 고어와 난삽한 말의 사용 배제 △지나치게 기복적·의타적인 표현 자제 등을 요구했다.

**성보관리** 홍윤식교수(동국대 박물관장)는 '불교문화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제하의 발표에서 "사찰소장 문화재는 일반문화재에 비해 신앙의 대상이란 특수성을 지니므로 그 관리방법도 특수성을 띄어야 한다"면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성보박물관의 건립은 매우 고무적이나 단순히 유리속에 보관하는 차원이 아닌 참배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불교에 대한 신앙심을 고취시킬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씨(문화재 위원)는 "종단이 중심이 돼 각 사찰 성보문화재에 대해 현황파악을 실시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성보박물관건립이 필수적"이라며 "각 사찰 특성에 맞는, 성보를 중심으로 한 특별강좌개설과 종단내 '성보보존위원회'활성화, 성보보수작업을 추진할 수 있는 '성보보수기동보수단'을 신설 운영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숙 기자

# 오색연등도 함께한 '열린음악회'

## 불국사 1만여 사부대중 동참 '환희심'

오탁악세를 벗어난 피안의 세계, 다보와 석가의 탑파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부처님나라 불국사 경내에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퍼졌다. 부처님오신날 및 불국사·석굴암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8일 불국사 청운교 백운교 앞에서 열린음악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불국사주지 설조스님과 이의근 경북지사 이원식 경주시장과 시민등 사부대중 1만여명이 참석해 산사음악회를 만끽했다.



◇불국사 스님 및 신도, 경주시민 등 사부대중 1만여명이 동참한 KBS 열린음악회.

형형색색의 연등이 불국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은 가운데 은은한 3번의 타종으로 음악회는 시작됐다. 이광조 안상수 박남정의 '솔개' 삼중창을 비롯해 최진희 이은하 김태곤 등 인기가수들과 바리톤 김원경씨가 출연해 '송학사' '장안사' 등 노래를 열창했다. 특히 국악인 김영임씨가 청량사 룸비니어린이합창단과 함께 '탑돌이'를 부를 때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불국사 어머니회원들이 석가·다보탑 주위를 탑돌이하여 절묘한 앙상블을 연출했다. 또한 테너 시명스님(통도사)이 '석굴암' '청산에 살리라'를 노래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무대뒤켠으로 계곡물이 구름다리아래를 지나 연지(蓮池)로 흐르는 물소리를 배음삼아 울려퍼진 화음에 흠뻑 심취했다. 이날 녹화를 마친 불국사 열린음악회는 지난 26일 오후 6시30분부터 1시간 30분동안 KBS 1 TV를 통해 전국에 방영됐다.

경주=이윤호 기자



◇세계적인 현대음악 작곡가 고 윤이상씨의 음악회가 종립 동국대(사진)와 KBS 홀에서 열렸다.

# 윤이상음악회 '관객만족'

## '바라' 등 동양적 선율담긴 현대음악 음미

세계적인 현대음악작곡가 고 윤이상을 추모하는 음악회 '飛天 겨레의 하늘을 날아…'가 지난 15일과 17일 KBS홀과 동국대 교정에서 각각 열렸다. 이번 음악회에는 불교의 원융사상을 정신의 한 축으로 하여 한국적 전통음악적 요소와 서양현대기법을 깊이있게 조화시켜 동양적 현대음악의 개척자로 평가받고 있는 윤씨의 관현악곡과 가곡, 기악곡들이 연주됐다. 특히 관현악 '바라'는 불교사상을 주제로 하면서 길게 지속되는 음향들이 단절됨없이 중첩되는 독특한 음향기법이 사용되고 바이올린과 목관악기가 이끌어내는 독주들의 대화가 등장해 윤이상의 음향기법을 잘 나타내주는 곡으로 이번에 한국 초연됐다.

이번 음악회에는 윤이상과 함께 활동했던 도모코 키바(바이올린) 그레고리 존스(첼로) 파울로 알바레스(피아노)등 독일 현대음악가들이 초청 연주해 한층 고인을 기리는 뜻을 더했다.

또한 이병렬(소프라노) 고성현(바리톤) 김인혜(소프라노) 임웅균(테너)씨등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이 출연, '고풍의상' '그네' '그리운 금강산' 등 가곡과 민요 오페라 아리아 등을 노래했다. 〈숙〉

## 문화단신

### 세계유산지정 기념 불국사·석굴암 음악회

불국사 석굴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지정 음악회가 지난 28일 오후 7시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동국대 국악과 주관으로 열렸다. 음악회 1부는 관현합주 '영산회상중 염불도드리' 관소리 '춘향가' 승무 범패 바라춤 등의 공연, 2부는 관현악과 합창단이 찬불가를 공연, 박수를 받았다.

### 도열스님 작품전

#### 연꽃세상등 구도메시지

도열스님의 다섯번째 작품전이 5월28일부터 6월5일까지 한전프라자갤러리(02-758-3494)에서 개최돼 구도의 메시지를 표현한 만다라 그림을 선보인다.

### 박근자씨 개인전

#### 30일까지 유나화랑

원로화가 박근자씨의 개인전이 오는 30일까지 강남 유나화랑(545-2151)에서 열리고 있다. 끊임없는 실험정신을 추구해온 박씨는 이번 전시회에서 깊은 내면의 세계를 차분하게 표출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고침** 본지 79호 15면 '봉축展'에서 생명의근원전과 물미협회원전의 사진이 바뀌었기에 바로잡습니다.

# 眞景시대 특별전 간송미술관

## 6월 2일까지…서화등 120여점 전시

간송미술관 설립30주년, 개관25주년을 기념하는 '眞景시대특별전'이 오는 6월 2일까지 성북동 간송미술관 1·2층 전시실에서 개최되고 있다. 진경시대란 조선조 숙종대(1675~1720)부터 정조대(1777~1800)까지를 일컫는 문화사적인 개념으로, 조선성리학을 바탕으로 조선 고유문화색을 한껏 드러내면서 난만한 발전을 이룩했던 문화절정기를 지칭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말까지 만들어진 그림과 글씨, 도자기, 서적 등 총 1백20여점이 전시된다. 겸재 정선 혜원 신윤복 현재 심사정 단원 김홍도 표암 강세황등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화가들의 작품과 윤순 이재 김시민 이광사 등 명필들의 작품, 정조의 문집 '홍재전서' 초간본과 사도세자의 문집 '능허관만고'등 귀중본들도 전시되고 있다.

전시와 함께 발간된 〈澗松文華 50〉에서 정병삼교수(숙명여대)는 '진경시대 불교의 진흥'기고를 통해 "조선고유색을 드러내는 진경시대에 사원에도 중창불사 즉 사원건축과 불상 및 불화조성이 활기차게 진행되었다. 강경(講經)이 성행하는 사상적 진전과 함께 유학자들의 불교에 대한 이해경향은 비판위주에서 점차 관심과 이해로 바뀌고 승려와 문사의 교유가 잦아지면서 승려의 문집간행이 성행하는 풍조를 이루었다"고 소개했다.



### 원효문예대제전

원효선사 열반 1310주기를 맞아 원효스님을 기리는 원효문예대제전이 지난 16~17일 이틀간 경주 분황사, 황룡사지, 시내일원에서 성료됐다. 이번 문예대제전에는 봉찬법요식을 비롯 노래마당 춤 연날리기 무애가 무마당 강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사진은 16일 분황사 모전석탑앞에서 열린 봉찬의식중 '헌화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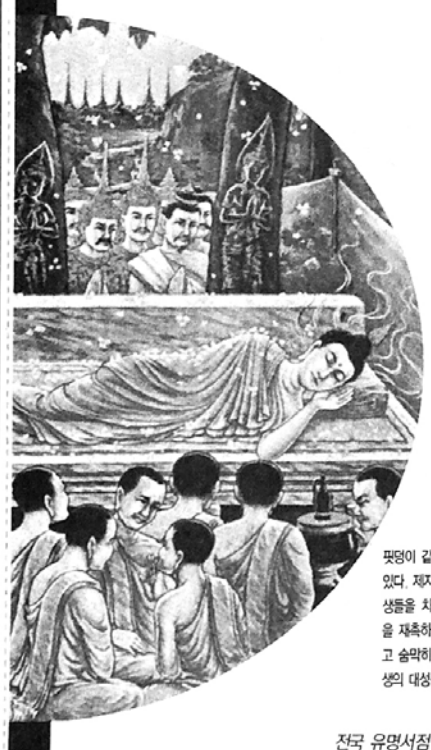
〈경주=이윤호 기자〉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다.
이제 세상은 모두 다 도(道)를 놓아 버렸다!

THE LAST WORD

부처님의 유언

공파 스님 역해



부처님 자비의 극치!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남기신 금쪽 같은 최후의 유언!

아! 아!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끝까지 간곡하게 당부하신 이 유언은
부처님 자비의 극치를 나타낸 것이로다.
그러므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아니 두 발로 땅을 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 최후의 말씀을
뼈에 새겨두고 간에 기록해야 할 것이다.



신국판/400면/값 7,000원

◇ 계율에 대하여 ◇ 욕심에 대하여 ◇ 희론에 대하여
◇ 마음에 대하여 ◇ 만족에 대하여 ◇ 수행에 대하여
◇ 음식에 대하여 ◇ 떠남에 대하여 ◇ 의문에 대하여
◇ 수면에 대하여 ◇ 정진에 대하여 ◇ 진리에 대하여
◇ 인욕에 대하여 ◇ 정념에 대하여 ◇ 부촉에 대하여
◇ 교만에 대하여 ◇ 선정에 대하여 ◇ 무상에 대하여
◇ 아첨에 대하여 ◇ 지혜에 대하여

뭇덩이 같은 중생들을 두고 떠나서야 하는 열반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제자는 걱정 마시라고 오히려 대스승을 위로하고 있지만 가엾은 중생들을 차마 두고 떠나시기가 안쓰러워 의심이 있느냐고 거듭거듭 질문을 재촉하셨다. 숨을 죽여가며 열반을 지켜보는 모든 제자들에게 다급하고 숨막히게 이어지는 그분의 마지막 유시가 끝나자 산천초목과 억조창생의 대성통곡이 전 허공계를 울리었다.

전국 유명서점 절찬 판매중! 태일출판사 단체 주문 받습니다 927-2834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전화 927-2831 팩스 924-3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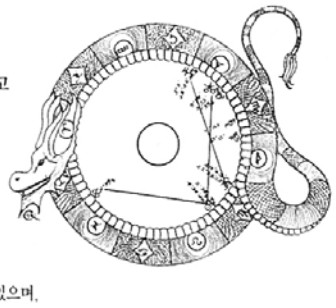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그리고 환생은 계속되고 있다!

환생의 체험 사례

나는 아흔여덟 번 환생했다

조 피셔 지음 /손민규 옮김

한때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받아들이기 힘든 때가 있었다.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었다.
환생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금에도
환생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느낌이 더 많은 체험을 갈망하게 하고
이 갈망은 우리의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우리를 계속 지상에 돌아오게 만든다.



"어쨌든 그대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환생의 법칙은 우리에게 〈영원〉을 선물한다."

환생설은 티벳 불교인들의 생활양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가리지 않고 똑같이 적용된다.
또한 환생설은 연기설(緣起說)과 인과(因果)의 법칙과도 관련되어 있다.
지혜와 자비의 계발은 궁극적으로 부처님이 이룬 더없는 깨달음의 경지를
지향하는 바, 따라서 이런 계발 과정이 있기 위해서는 환생이 필수요인이다.
– 달라이 라마 –

신국판/280면/값 6,000원

태일출판사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전화 927-2831 팩스 924-3236